

# 조헌영의 『婦人病治療法』 연구 : 의학사상과 처방을 중심으로

<sup>1</sup>김도원, <sup>2</sup>차웅석

<sup>1</sup>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A Study on Cho Heon-yeong's *Buinbyeongchiryobeob* (婦人病治療法) - Focused on Medical Ideology and Prescription

<sup>1</sup>Dowon Kim, <sup>2</sup>Wung-Seok Cha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d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 Cho Heon-yeong's medical theory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by looking at the contents and prescriptions of 『*Buinbyeongchiryobeob* (婦人病治療法)』. This book is a clinical text on obstetrics and gynecology written in the 1940's. This book consists of an Introduction, Jeungchi (證治), Yangjinhanchi (洋診漢治), Cheobangnonhae (處方論解) and refers to 『*Donguibogam* (東醫寶鑑)』, 『*Keongakjeonseo* (景岳全書)』, 『*Junguihaksajeon* (中醫學辭典)』, 『*Jejungsinpyeon* (濟衆新編)』, 『*Uihakipmun* (醫學入門)』 and 『*UijongKeumkam* (醫宗金鑑)』. Cho Heon-yeong's theory in this book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his medical eclecticism is centered on Korean Medicine, with incidental use of Western medicine. Second, he regarded weakness (虛證) as a vital factor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Third, he added "mental state" to the list of basic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Fourth, he presented a new diagnostic standard based on a spectrum of fire (火) and cold (冷). There are 363 prescriptions in this book, and 171 of them are from 『*Donguibogam* (東醫寶鑑)』. The books frequently used prescriptions are all designed to supplement (補藥). There are 48 prescriptions that original to Cho Heon-yeong. Additionally, this book contains eopsaeng (攝生) and pretended stimulation therapies and exercise methods.

Key words : Gynecological treatment, Oriental Medicine Series, Cho Heon-yeong, eclecticism of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 I. 서론

『婦人病治療法』은 한의학자이자 정치가인 조헌영의 저서로, 1941년 간행되었다. 처음에는 『婦人病治療法』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출간되었으나, 이후 『胃腸病治療法』, 『肺病漢方治療法』, 『神經衰弱症治療法』, 『民衆醫術理療법』이라는 4종의 의서와 함께 『東洋醫學叢書』라는 1권의 책으로 묶여 출간되었다. 『婦人病治療法』 자체의 분량은 B5용지 기준 194쪽으로 간소하나 부인병 치료의 원칙과 주의할 점, 증치와 처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명료하고 쉬운 문체를 사용하

였으며, 국한문혼용체와 세로쓰기 및 띄어쓰기로 쓰여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東洋醫學叢書』가 조헌영이 남북된 이후인 1990년대까지도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통해 『婦人病治療法』이 한의사들 및 한의학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읽혔음을 유추할 수 있다.

『婦人病治療法』의 저자 조헌영은 1900년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한학을 익혔고, 대구 고등보통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일본에서부터 신간회 등의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선에 들어온 후에도 꾸준히 항일운동을 지속했다.<sup>1)</sup>

1930년대부터는 한의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34년에 동서의학연구회의의 간사로 선출되었고 1936년 김영훈, 신길

접수 ▶ 2021년 04월 24일 수정 ▶ 2021년 04월 26일 채택 ▶ 2021년 05월 07일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2274 E-mail : chawung@khu.ac.kr

1)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서울:들녘. 2011:332.

구 등과 함께 동서의학연구회 주최의 ‘통속한의학강연회’에서 ‘한방의학에서 본 현대병’을 강연했다.<sup>2)</sup> 조현영은 특히 그가 만들어낸 ‘통속한의학’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한의학의 확산 및 대중 치료를 중시했다. 『通俗漢醫學原論』, 『婦人病治療法』, 『胃腸病治療法』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잡지 『東西醫藥』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신문에 한방치료법 등의 칼럼을 10여 회 기고했다.<sup>3)</sup> 또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취합해 한의학을 발전시키자는 ‘동서의학절충론’을 펼쳤다.<sup>4)</sup>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조선일보 지면에서 진행된 한의학 부흥 논쟁에서 한의학의 부흥을 주장했다.

해방 이후 조현영의 한의학계 활동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1945년 이후 조현영은 정치 활동에 주력해 제헌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950년 2월 보건의료행정법안에서 한 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한 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법안 폐기에 기여했다. 한국전쟁 중 조현영은 납북되어 북한에서 한의학 연구 활동을 지속하다가 1988년 사망하였다.<sup>5)</sup>

조현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주로 그의 의학사상과 한의학계에서의 활동을 다루어 왔다. 박윤재<sup>6)</sup>는 1930~1940년대 조현영의 동서절충적 의학론을, 신창건은 조현영의 정치적 의학사상을 연구했다.<sup>7)</sup> 김훈과 이해웅<sup>8)</sup>은 『통속한의학원론』중 음양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현영의 음양론을 분석하였다. 전혜리<sup>9)</sup>는 조현영이 적극 참여했던 1934년 한의학 부흥 논쟁을 연구하였다. 백유상<sup>10)</sup>은 조현영의 전반적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조현영의 의학사상에 대해 한의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의 한의학 기초이론서인 『通俗漢醫學原論』이 현재까지 널리 읽히며 관련된 연구도 존재하는 반면, 임상 의서인 『婦人病治療法』을 비롯한 『東洋醫學叢書』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婦人病治療法』은 조현영의 의학 사상을 넘어 임상 지식 및 경험까지 포괄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婦人病治療法』<sup>11)</sup>의 내

용을 분석하여 조현영의 의학 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임상의로서의 면모를 파악하고, 20세기 초, 서양의학이 자리 잡던 시기에 한방부인과학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 II. 본론

### 1. 『婦人病治療法』의 저술 배경

180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도 의료 선교를 시작으로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우정국 방화사건에서 의료 선교사 앨런은 증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하여 서양의학의 존재를 조선 지배층에 알렸다. 이후 제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서양의학 병원이 설립되었고 을사조약 이후 일제에 의한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서양의학 이식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내내 조선 내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막론하고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했다. 서양의학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었고 일반 민중들은 기존의 한의학 치료조차 받기 어려웠다. 때문에 일제는 한의학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말살하지 못하고 열등한 비주류로 강등시켜 의료자원만을 이용하려 하였다. 1930년대에는 강경한 군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약재와 약품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폐지하려던 醫生제도를 다시 유지시키고 농가에 한약재 재배를 권하기도 하였다.<sup>12)</sup>

이처럼 의료 공급이 부족하고 일제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학을 이용하던 상황에서 조현영은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한의학을 연구하고 보편화하여 대중의료에 공헌하고자 하였다<sup>13)</sup>. 특히 『婦人病治療法』은 조현영이 한의학을 익힌 목적에 가장 부합하며, 실제로 그가 큰 관심을 보인

2) 김남일. 상계서:27

3)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韓醫學通史』. 고양:대성의학사. 2006:494-495.

4)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關한 試論』. 韓國醫史學會誌. 2004;17(2):11-12.

5) 김남일. 상계서:332.

6) 박윤재.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40:118-139.

7)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42.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1.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5:117-154.

8) 김훈, 이해웅. 「通俗漢醫學原論 陰陽篇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17-24.

9) 전혜리. 「1934년 한의학 부흥 논쟁」. 한국과학사학회지. 2011;33(1):41-89.

10) 백유상. 「조현영(趙憲泳)의 생애와 의학사상(醫學思想)」.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3):103-130.

11) 1940~1990년대에 다양한 판본들이 간행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1971년 서울 醫林社에서 출간된 『東洋醫學叢書』에 수록된 『婦人病治療法』을 대상으로 하였다.

12)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정책: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1. 서울:아카넷. 2008:58-78.

13) 조현영. 『通俗漢醫學原論』. 서울:醫林社. 1990:1.

분야이기도 했다. 그는 대중의료에 공헌하는 것을 의학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의료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였던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현영은 젊어서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가로서 자연스럽게 국가 인구나 직결되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 2. 『婦人病治療法』의 구성 및 내용

『婦人病治療法』의 목차는 「緒言<sup>14)</sup>」, 「證治」, 「洋診漢治」, 處方論解로 이루어져 있다. 緒言에서 부인병에 대한 조현영의 전반적인 관점을 밝혔다. 「證治」에서는 구체적 증후들에 대한 辨證論治를 상세히 논하였다. 「洋診漢治」에서 동서의학을 절충하여 서양의학 부인과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처방을 제시했다. 「處方論解」에서는 「證治」와 「洋診漢治」에 수록된 처방을 찾기 쉽게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출전과 약재 구성을 밝혀 수록하였다. 전체 목차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緒言」에서 부인병의 특징, 치료의 대원칙과 주의할 점을 축약하여 소개하였다. 먼저 여성의 생리적 특징에 대해 기존 한의학의 ‘經帶胎產’과 유사한 月經, 胎孕, 分娩, 産後에 독자적 의견으로 精神狀態를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추가하였다. 부인병 치료의 대원칙으로 하나의 증상이나 장기에 천착하기보다 생활상태를 개선하고 종합적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sup>15)</sup>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부인병은 대부분 血虛와 氣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관련 처방과 약재를 제시했다. 여성 진료 시의 주의할 점에 대해 『景岳全書』婦人規 중 論難易<sup>16)</sup>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보편적 의료윤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표 1. 『婦人病治療法』의 목차

緒論	一. 婦人病과 女子의 特質
	二. 婦人病과 漢方治療
	三. 婦人病治療의 主眼
	四. 婦人病診斷과 治療의 困難한 點
	五. 醫家와 病家の 주의할 點
證治	一. 虛弱
	二. 火
	三. 冷
	四. 惡血
	五. 月經
	六. 崩漏
	七. 帶下
	八. 求嗣
	九. 胎孕
	十. 分娩
	十一. 産後
	十二. 乳
	十三. 癥瘕
	十四. 陰門諸疾
	十五. 獨身病
洋診韓治	一. 히스테리
	二. 불감증
	三. 子宮內膜炎
	四. 子宮實質炎
	五. 子宮後屈
	體表刺戟
	六. 子宮前屈
	七. 子宮下垂, 子宮脫出, 子宮翻轉症
	八. 喇叭管炎
	九. 子宮發育不全, 卵巢發育不全
	十. 子宮筋腫, 子宮肉腫
	一一. 子宮癌
	一二. 葡萄狀胎兒
	一三. 卵巢炎, 輸卵管炎
	一四. 骨盤結締織炎, 子宮外膜炎, 子宮周圍炎, 骨盤腹膜炎
	一五. 子宮結締織血腫
	一六. 子宮外妊娠, 輸卵管妊娠
	一七. 卵巢囊腫
	一八. 惡性脈絡炎上皮膚腫
	一九. 陰瘰癧
處方論解	

14) 『婦人病治療法』의 목차에는 ‘緒言’, 실제 내용에는 ‘緒論’이라고 서로 다르게 기재되었다. 같은 시기 발행된 조현영의 다른 저서 『通俗漢醫學原論』에서는 목차와 내용에서 일관되게 ‘緒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緒言’으로 표기했다.

15) 『婦人病』이 비록 그病患局所는 子宮또는 그에附屬한 器官이라고하더라도 그病의原因 또는 그病이 回復되지못하게하는原因은 그全身의生活狀態가 不健全한데있는것이다.(중략)그러므로 診斷도 綜合的의라야할것이고 治療도 綜合的의라야할것이다.” 조현영, 『東洋醫學叢書·婦人病治療法』, 서울:醫林社, 1971:4

16) “蓋以婦人幽居多鬱, 常無所伸, 陰性偏拗, 每不可解. 加之慈戀·愛憎, 嫉妬·憂恚, 悶知義命, 每多怨尤. 或有懷不能暢遂, 或有病不可告人, 或信師巫, 或畏藥餌, 故染著堅牢, 根深蒂固, 而治之有不易耳, 此其情之使然也. 然尚有人事之難. 如寇宗奭引黃帝之論曰: “凡治病察其形氣·色澤, 形氣相得, 謂之‘可治’; 色澤以浮, 謂之‘易已’, 形氣相失; 色夭不澤, 謂之‘難治’”, 又曰: “診病之道, 觀人勇怯·骨肉·皮膚, 能知其虛實, 以爲診法”, 故曰: “治之要極, 無失色·脈”, 此治之大則也. 今富貴之家, 居輿室之中, 處帷幔之內, 復有以綿帕蒙其手者, 既不能行望色之神, 又不能盡切脈之巧. 使脈有弗合, 未免多問, 問之覺繁, 必謂醫學不精”, 往往并藥不信, 不知問亦非易.” 張介賓, 『景岳全書(下)』, 서울:大星文化社, 1992:1-2.

부인병의 구체적인 증후들은 「證治」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證治」의 목차는 총 14條로 구성되었다. 虛弱, 火, 冷, 惡血이라는 종합적이고 전신적인 證候를 먼저 언급한 후 經帶胎產에 해당하는 月經, 崩漏, 帶下, 求嗣, 孕胎, 分娩, 產後를 일련의 순서로 논했다. 마지막으로 乳, 癥瘕, 陰門諸疾, 獨身病라는 외과적 병증과 특수한 병증들을 다루었다. 月經, 崩漏, 帶下, 求嗣, 孕胎, 分娩, 產後의 순서는 기존 의서에서 공통적으로 經帶胎產을 순차적으로 다룬 편제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전신적 병증은 虛弱, 火, 冷, 惡血을 그보다 먼저 배치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證治」에서 각 항목별로 설명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증후의 정의와 어원, 이명 등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상세한 증상 및 발병기전과 치료 시의 주의사항 등을 서술하였다. 정의와 증상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거나 어원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의서에서 한문 원문을 발췌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東醫寶鑑』을 다수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病因 또는 辨證에 따라 하위 항목을 분류하여 간략한 해설과 감별요점을 덧붙이고 처방 및 처방을 제시했다. 처방마다 「處方論解」에서 매긴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병의 특징이나 감별요점보다 병인을 상위 기준으로 삼는 관점은 『東醫寶鑑』과 유사하며<sup>17)</sup> 구체적인 證治는 『東醫寶鑑』 및 『景岳全書』의 내용을 다수 참조하였다. 결론적으로 『婦人病治療法』은 『東醫寶鑑』의 구성과 내용을 계승하면서 『景岳全書』를 비롯한 중국의 의서들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洋診漢治」에서는 당시의 시대상 및 저술 의도<sup>18)</sup>를 밝힌 뒤 서양의학의 부인과 병명에 대한 한의학의 證治를 논하였다. 총 19가지<sup>19)</sup>의 서양의학 부인과 질환을 다뤘고, 병명과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해당 질병에 사용 가능한 한의학 처방을 제시했다. 그 중 히스테리와 不感症은 증상과 처방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고 子宮癌과 子宮後屈에는 독자적인 치료법이 등장하나, 다른 병명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1-2줄로 짧거나 「證治」 중 해당하는 條를 참조하라고만 서술되었다.

### 3. 『婦人病治療法』에 나타난 의학사상

#### 1) 동서의학절충론

조헌영은 일제강점기에 서양의학의 장점을 수용하고 한의학을 계승하려는 동서의학 절충론학과 대표적 인물로<sup>20)</sup>, 자신의 칼럼과 단행본 등 여러 저작물에서 동서의학 절충론을 주장하였다. 조헌영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징을 『通俗漢醫學原論』<sup>21)</sup>에서 비교한 바 있다.

조헌영은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접근성, 근본 치유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의학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내분비 조절이고 반대로 서양의학은 외과술이나 백신, 응급 처치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여겼다. 이처럼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조헌영은 두 의학 중 한 가지만을 택하기보다 서로의 장점을 취하자는 동서의학절충론을 주장했다. 『婦人病治療法』의 「證治」와 「洋診漢治」에서는 동서의학절충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 (1) 「證治」의 동서의학절충론

「證治」에서 한의학의 부인과 증후들을 논하는 과정에는 조헌영의 동서의학절충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經帶胎產을 중심으로 한 「證治」의 목차 구성과 증후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서, 조헌영은 한의학의 체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의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동서의학을 절충하려는 시도를 일관되게 지속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한의학 이론에 합리성을 부여하면서 신비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서양의학의 지식과 치료 술기를 차용하는 것이다.

한의학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헌영은 한의학의 이론들을 명료하게 해석하였다. 병증의 정의와 기전, 감별진단 등을 설명할 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증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령

17)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韓國醫史學會誌. 2000;13(1):123.

18) “近來에 洋醫診斷에 依하여 病名이 決定되는 일이 많으며 그런 病名이 漢醫學에는 없으니 그 病에 對한 漢方治療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그 大綱을 말하려 한다.” 조헌영. 상계서:101.

19) 히스테리, 不感症, 子宮內膜炎, 子宮實質炎, 子宮後屈, 子宮前屈, 子宮下垂, 子宮脫出, 子宮纖維轉症, 喇叭管炎, 子宮發育不全, 卵巢發育不全, 子宮筋腫, 子宮肉腫, 子宮癌, 葡萄狀鬼胎, 卵巢炎, 輸卵管炎, 骨盤結締織炎, 子宮外膜炎, 子宮周圍炎, 骨盤周圍炎, 骨盤腹膜炎, 子宮結締織血腫, 子宮外妊娠, 輸卵管妊娠, 惡性脈絡炎, 上皮腫, 陰莖瘻

20) 김남일. 상계는문:11-12.

21) 조헌영. 상계서:21-38.

月經條의 初經과 관련하여 ‘女子二七天癸之’라는 한의학 이론에 대해 ‘月經이 처음 始作되는 年齡은 地方, 種族, 體質, 職業, 階級 等を 달아서 반듯이 一定한 것은 아니나 統計上 十四歲가 初經의 一般的 年齡으로 되어 있다.’<sup>22)</sup>라고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해석했다.

한의학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한의학 용어를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乳條의 乳腫硬疼痛은 기존의 吹乳, 妬乳라는 병명을 대체한 것이다. 기존 의서에서는 産後 유방이 붓고 아픈 증세가 주로 乳兒가 더운 입김을 吹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이를 묘사하는 吹乳, 妬乳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현영은 이 병명을 증상과 병인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乳腫硬疼痛으로 수정했다.

동시에 전통 한의학에서 나타나는 신비성을 배제하였다. 求嗣 및 孕胎條에서 기존의 무속적 측면을 배제하고 실증 가능한 부분만을 취하려는 태도가 잘 나타난다. 『東醫寶鑑·婦人門』중 常女法과 孕胎에는 다양한 철학적, 윤리학적 금기가 등장한다.<sup>23)</sup> 반면 『婦人病治療法』의 求嗣條와 胎孕條에서는 이러한 금기와 민간요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태에 대비한 건강관리, 임신의 판별과 임신 중의 생리적 변화, 양생법, 妊娠諸證만을 다루었다. 그 외에도 五色帶처럼 일률적으로 陰陽五行論을 적용한 부분은 축약하거나 생략했다.

다음으로 서양의학적 지식과 치료 술기를 차용하여 한의학의 한계를 보완하려 시도하였다. 조현영은 한의학의 증후를 설명하면서도 서양의학의 생리, 병리, 해부학적 개념과 이론을 자연스럽게 활용했다. 예를 들어 崩漏의 기전을 “氣虛한 사람은 血循이 圓滑치 못하고 生理的 操作이 느려서 皮 속에 많은 老廢物質을 一一히 生理的으로 淸化할 餘餘가 없을 때는 그 좋지 못한 皮를 組織에서 直接體外로 倍出 하는 일이 있으니”<sup>24)</sup>라고 설명했다. 帶下條에서 대하의 개념을 설명할 때 ‘生殖器’, ‘分泌物’, ‘生理的 機能’ 등의 서양의학 용어를 한의학의 ‘前陰’, ‘下焦’ 등과 혼용했다. 月經條의 經斷 중에서 倒經을 ‘代償月經’이라는 서양의학 병명으로 대체하여 제시하거나, 帶下條에서 淋毒의 병인을 淋疾毒이 전염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여 서양의학의 성 전파성 질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서양의학에서 밝혀진 기전들 역시 수용하였다.

필요하다면 서양의학의 지식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수용했다.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 처치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 한의학의 내과적 치료가 한계가 있으며, 서양의학의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鎖陰, 難産, 乳巖 등에서 한의학 치료로 완치가 어렵다거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乳巖은 완치할 방법이 없고 양방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증상을 완화하는 한약을 함께 제시하여 서양의학 치료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동서의학의 협진을 추구했다.

## (2) 「洋診漢治」의 동서의학절충론

「洋診漢治」에서는 동서의학 절충이 더욱 심화된 방식으로 드러난다. 洋診漢治의 사전적 정의는 서양의학으로 진단하여 한의학으로 치료한다는 뜻이다. 한의학자인 조현영이 굳이 『婦人病治療法』 내에 「洋診韓治」라는 독자적인 항목을 두어 서양의학의 진단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이유는 당시 서양의학이 자리를 잡아 가던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지식이 그러한 세태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현영은 서양의학의 체계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한의학의 證에 기반을 둔 종합적 진단방식에 의거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의학의 목적이 병명보다 치법을 밝히는 데 있다고 보고, 서양의학의 진단명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보다 한의학의 辨證에 맞는 치법을 채택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의학의 본질에 가깝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영의 의도는 서양의학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두 의학을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

때문에 「洋診漢治」는 「證治」보다 뒤쪽에 배치되었으며, 19종의 질병을 다루면서도 분량이 8쪽에 불과하다. 「洋診漢治」의 구성과 형식도 서양의학의 질병명을 한의학의 유사한 證에 배속시킨 후 그 證에 대한 한의학적 감별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서양의학 부인과 질환이 한의학에서 어느 證에 해당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서양의학 질환의 기전과 증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특징 위주로 서술하였다. 서양의학 질환의 병명과 한의학의 어느 증후에 해당하는지만 제시하

22) 조현영. 상계서:26.

23) 許浚. 동의보감국역위원회 역. 상계서:603.

24) 조현영. 상계서:37.

기도 했다.

예를 들어 「洋診漢治」의 첫 번째 항목인 ‘히스테리’를 살펴보면 먼저 ‘全身의 衰弱과 不利한 環境으로 因하여 心身の 不安에서 오는 一種 獨特한 官能的 疾患’<sup>25)</sup>이라고 서양 의학의 정의와 이론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한의학의 失性, 失真, 臟燥症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증상을 간단히 언급하고 처방으로 환경 개선과 7종의 한방 처방을 제시했다. 한의학의 寒熱 진단에 의거하여 熱이 많을 때는 따로 처방을 제시했으며, 감별진단으로 독신 여성과 성적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獨身病條, 不感症條를 참조하라고 하였다.<sup>26)</sup> 다른 항목들의 경우에도 子宮內膜炎은 帶下, 産後諸證, 月經痛, 崩漏 等 治法을, 喇叭管炎은 月經不順, 帶下治法을, 葡萄狀胎는 癥瘕治法을 참조하라는 식으로 해당 질환이 속한 한의학 증후들만 언급했다.

「洋診漢治」에서 주요한 진단방법과 치료의 기본은 모두 한의학의 證治 체계에 근간을 두었고 서양의학 지식은 빠른 감별을 위한 참고 용도에 그쳤다. 이러한 구성은 한의사들이 진료 중 서양의학의 병명을 빠르게 찾아보고 적합한 한의학 치료를 진행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조헌영이 의도한 「洋診漢治」의 역할은 서양의학 병명을 한의학 증후로 번역해주는 사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婦人病治療法』에서 나타난 동서의학절충론은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체계가 기본이 되고, 부가적으로 서양의학의 일부 이론과 치료를 한의학의 하위로 편입시켜 이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양의학의 진단명에 한의학 치료를 일대일로 대응하거나 한약 성분만을 추출해 제약회사에서 대량 조제하는 등 서양의학 체계 속에서 한의학을 해체하고 단편적으로 취하여 이용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관점이었다.

## 2) 補虛 위주의 부인병 증치

조헌영은 부인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虛弱을 주요한 병인으로 보고 補虛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婦人病治療法』의 편제를 『東醫寶鑑』과 『景岳全書』 등의 종합의서의 부인과와

유사하게 구성하면서도 虛弱을 「證治」의 첫 순서로 배정한 데에서, 그가 虛弱을 부인병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병인이라 증후로 보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부인병에서 虛弱을 중시한 이유는 먼저 특정 장부나 국소 부위에 한정되지 않는 종합적이고 전신적인 병증이라서 한의학의 치법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빈곤하고 폐쇄한 사회 상황 역시 조헌영이 補虛를 중시한 배경이 되었다. 『婦人病治療法』이 출간된 1930~1940년대는 군국주의를 펼치던 일제의 착취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인 여성의 경우 虛弱이 더욱 심했으며 조헌영 역시 여성의 계층적 취약성<sup>27)</sup>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sup>28)</sup>를 인지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부인병에서 實證보다는 虛證을 훨씬 중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婦人病治療法』에서 병인 중 虛弱을 중시하고, 과도한 攻瀉藥의 사용을 경계하면서 補虛藥을 다수 사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조헌영은 「證治」 중 많은 條에서 허증을 중시했다. 月經條, 崩漏條, 帶下條, 乳條, 癥瘕條 등 대부분의 증후에서 虛弱을 가장 우선적인 병인으로 제시했다. 기존 한의학에서 瘀血, 痰濁, 濕 등의 實證으로 인한 병증이라고 보았던 증상에 대해서도 虛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乳條에서는 ‘人蔘과 乳汁’이라는 글을 수록해 임산부가 補氣시키는 人蔘을 복용하면 유즙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당시의 인식을 반박하고 人蔘이 유즙의 양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며 補藥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하였다.

특히 임신 중과 출산 후의 虛弱을 대단히 경계했다. 먼저 胎孕條에서는 임신 중의 대표적 證候인 惡阻의 원인을 虛弱 때문에 생긴 妊娠中毒이라고 보았다. 『東醫寶鑑』에서 惡阻의 원인을 痰과 熱이라고 본 것<sup>29)</sup>과는 상반된 관점이다. 惡阻의 치료에서도 補虛와 順氣, 潤便, 利水를 함께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胎漏는 대부분 虛弱에 기인한다고 보고 치료도 모든 虛證을 포괄했다. 半産의 예방을 위해서도 임부의 허약한 부분을 보하면서 調攝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妊娠諸證의 10가지 병증 중 6가지<sup>30)</sup>에서 虛弱을

25) 조헌영. 상계서:101.

26) 조헌영. 상계서:101-102.

27) “男子本位인 社會制度앞에 女子는 抑鬱하고 冤痛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헌영. 상계서:3.

28) “農村婦女에 子宮下垂症이 많은 것은 그들이 大概 營養은 不足하고...” 조헌영. 상계서:87.

29) “惡阻, 謂有孕而惡心, 阻其飲食者, 是也. 多從痰治. 肥者有痰, 瘦者有熱.” 許浚. 동의보감국역위원회 역. 『原本 東醫寶鑑 <新增版>』. 서울:南山堂. 2009:607.

30) 子癰, 子腫, 子痢, 子器, 子淋, 妊娠寒熱往來

중요한 병인 또는 경계할 대상으로 여겼다.

分娩條에서 產母가 체질이 虛하거나 미리 힘을 빼서 虛弱해져 출산할 때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을 크게 경계했다. 만약 孕婦가 虛弱할 때는 미리 培補氣血하는 助產方을 분만 예정일 2-3달 전부터 복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虛弱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부분은 產後條이다. 조헌영은 產婦는 몹시 허하고 피로한 상태이며, 虛證에서부터 대부분의 산후병이 시작되므로 약을 사용할 때도 虛證을 기본 전제로 삼아 주의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破血濟濫用의 廢』<sup>31)</sup>에서 이러한 생각이 명료하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당시 조선 의가들이 『醫學入門』을 따라 產後에 破血濟를 최우선으로 사용하던 세태에 대해 조헌영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產後에 瘀血이 있더라도 產婦의 疲勞와 虛弱으로 인한 대사 저하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破血濟를 쓰면 虛證을 더욱 조장하여 병세가 심해지므로, 먼저 補藥을 사용하여 虛證이 나아지면 자연히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다만 자신의 주장이 產後에 破血濟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폐단만 경계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產後의 모든 병을 볼 때 虛證을 우선적으로 보고 氣虛, 血虛, 陰虛, 陽虛를 따졌으며, 氣滯, 瘀血, 食積, 外感 등 實證은 부가적으로 다루거나 순서를 나중에 배열하였다.

그 중 惡露不下條에서는 기존의 의서에서 瘀血을 우선 제거하는 처방을 사용한 데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 이유는 첫째, 產婦의 회복이 빠르면 惡露가 일찍 멎더라도 정상 범주이고 병증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 產後諸證이 모두 惡露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醫學入門』<sup>32)</sup>에서 產後諸證에 가장 우선 시되는 병인을 瘀血로 지목하여 補藥을 기피한 것과 상반된다. 반면 『東醫寶鑑』의 產後治法<sup>33)</sup>에서 補虛湯을 처방으

로 제시한 것, 『景岳全書』<sup>34)</sup>에서 產後의 상태를 大虛하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헌영은 이처럼 虛弱을 거의 대부분의 부인병에서 가장 중요한 병인으로 인식하고 攻瀉藥의 폐단을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무조건적인 補藥 사용 역시 지양했다. 구체적으로 胎孕條의 妊娠禁忌에서는 임신 중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보약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妊娠諸證 중 妊娠外感에서는 약을 삼가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필요하다면 攻下之劑를 써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獨身病條에서는 증상이 虛弱과 비슷하나 반드시 구분해서 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조헌영은 당시의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攻瀉藥 사용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이는 『婦人病治療法』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 證治에서 대부분의 병증에 虛證을 근본 원인으로 보았으며 補虛를 우선적인 치료로 제시했다. 다만 무조건 補虛藥만을 사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한의학의 전일적 관점과 근본 치료에 맞게 증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병증 분석을 통해 虛實을 판별하되, 產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虛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 3) 婦人病에서 精神狀態의 중요성 강조

기존 한의학에서 여성의 생리적 특성으로 중시된 經帶胎產 외에 조헌영은 精神狀態라는 요인을 새로 추가했으며 그 영향력을 강조했다. 『緒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과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고 변동 폭이 크며, 이러한 변화가 신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반대로 신체적인 현상이 정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sup>35)</sup> 이는 『景岳全書·婦人規』 중에서 여성의 특성은 情이 남성과 다르다고 한 내용<sup>36)</sup>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 “產後病을 다스리는 一般 醫家의 態度를 보면 먼저 破血逐瘀濟를 써서 病勢가 훨씬 減한 뒤에 補藥을 쓸라고 한다. 그러나 虛弱에 基因한 產後病은 桃仁, 紅花, 玄胡索, 蘇木, 三稜, 蓬朮, 大黃, 芒硝 等 破血通瘀濟를 쓰면 元氣를 더욱 害해서 病勢를 더욱 增惡한다. 이런 때에 病者는 그 虛煩鬱悶이 一層 甚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醫家에서, 惡血衝心이라고 보고 亦是 破血濟에다 淸火濟를 兼해서 쓴다. 이렇게 해서 작고 破血之劑로 元氣를 害하고 淸火之劑로 生理의 活動을 抑壓하니 病勢는 減해질 理 없고 떨어져 病勢가 減함을 기드려서 補藥을 쓸라는 醫家는 끝끝내 補藥을 쓸 機會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중략) 그러므로 產母의 元氣를 돕고 血循을 利롭게 하면 體內에 留滯되어 있는 瘀血이 저절로 運搬消散될 뿐 아니라, 다시 瘀血이 생길 原因까지 없어져서 根本의 回復이 되는 것이다.” 조헌영. 상계서:74-75.

32) “產後必先逐瘀, 瘀消然後, 堪補方.(중략)如不逐瘀, 遽服參, 芪, 甘之屬停滯之濟, 或致瘀血攻心, 卽死者.” 李梴. 『編註醫學入門(婦人·小兒·外科)』. 서울:大星文化社. 1990:64-65.

33) “產後, 當大補氣血爲先, 宜用補虛湯, 雖有雜證, 以末治之.” 許浚. 동의보감국역위원회 역. 상계서:623.

34) “產後病治, 嘗見丹溪云: “產後當大補氣血, 卽有雜症, 以末治之. 一切病多是血虛, 皆不可發表, 此其意謂血氣隨胎而去, 必屬大虛, 故無論諸症, 皆當以大補爲先, 其他皆屬可緩.” 張介賓. 상계서:41.

35) “女子에게는 生理의 으로오는 微妙한感情變化가 많으니 月經때 마음이 異常하고 胎中에 性質이 고약해지는 등이 그것인데 그感情의 劇烈한活動이 다시 그肉體에 影響을 주어서 더욱 病變을 強化하는 일도 있다.” 조헌영. 상계서:4.

36) 張介賓. 『景岳全書(下)』. 서울:大星文化社. 1992:1.

다만 조헌영은 여성이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그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크다는 『景岳全書』의 관점에 동의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회 제도에서 찾았다.<sup>37)</sup> 여성이 감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가 선천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한발 더 나아가 당시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취약 계층에 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환경이 여성 개인의 정신 및 육체의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인병에서 精神狀態를 중요하게 보는 인식은 「證治」 및 「洋診漢治」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證治」 중 다양한 證候에 대해 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정신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 표에서 각 條별로 어떠한 정신적 요인들을 언급했는지 다루었다.

표 2. 부인병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요인

條	證候	관련된 정신적 요인
月經	經斷	精神的 激動
	經早	精神的 激動
崩漏	胞血不清	鬱怒로 인한 肝氣逆滯
		思慮過多로 인한 勞傷心脾
帶下	-	精神不安(思慮過度, 悲哀太甚, 冤鬱不叙)
胎孕	胎漏, 胎動	鬱怒
	半產	鬱怒
乳	乳巖	분노 또는 억울한 감정

「洋診漢治」에서는 타 질환보다 정신적 측면과 관련이 깊은 히스테리와 불감증을 긴 분량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른 질환들에 대해 해당 한방 證候를 참고하라고만 기재했던 것과 달리 이 두 질환에 대해 증상과 기전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의학 辨證까지 수록했다. 이러한 점에서 조헌영이 부인병의 진단과 치료 전반에 걸쳐 精神狀態가 부인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으며, 치료 시 세심한 주의와 고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4) 火와 冷에 대한 독특한 관점 제시

조헌영은 『婦人病治療法』의 「證治」 중 火와 冷을 각각 2번째, 3번째 순서에 배정할 정도로 중요시했으며, 이에 대해 기존의 한의학과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기존 한의학에서는 風寒暑濕燥火의 六氣가 지나쳐서 나타나는 六淫이 인체에 병을 유발한다고 보고 八綱辨證의 表裏, 陰陽, 寒熱, 虛實이라는 4가지 축으로 病情과 病機를 진단하였다. 조헌영은 六氣 중 風暑濕燥를 배제하고 火와 冷만을 주요 병인으로 보았으며, 동시에 病情을 파악하는 辨證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식은 1930년대 조헌영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火病과 冷症에 관련된 칼럼에서부터 나타난다. 조헌영은 단독으로 冷症에 대하여 2회, 火病과 冷症에 대해서 2회 칼럼을 연재하였다. 1935년 冷症에 대해 단독으로 다룬 2회의 칼럼<sup>38)39)</sup>에서는 冷症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여성에게 특히 冷症이 많은 이유를 陰陽論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1939년 火病과 冷症을 다룬 연속된 2회의 칼럼<sup>40)41)</sup>에서 부인의 火病과 冷症의 개념, 증세, 병인, 진단, 치료를 논하였다.

그 중 1939년 연재된 火病과 冷症에 관한 칼럼 중 火病과 冷症의 개념과 병인, 치법과 처방에 대한 설명은 3년 후 발간된 『婦人病治療法』 「證治」의 火條와 冷條에 일부 내용을 제외<sup>42)</sup>하고 그대로 수록되었다.

『婦人病治療法』과 칼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조헌영은 火와 冷을 부인병의 주축이 되는 병인이자 주요한 진단 기준으로 보았다. 먼저 火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 범주에서 인체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生理的 原動力’이며 相火, 君火 등의 개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내분비에 의해 조절되는데, 만약 조절

37) “東洋道德의 傳統으로 女子는 深閨에 蟄居해서 行動에 自由가 없으니 恒常 鬱寂할 뿐 아니라 男子本位인 社會制度 아래 女子는 抑鬱하고 冤痛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健康에 크게 影響을 주는 일이 많으니 失戀, 妻妾의 葛藤 등으로 肺病, 精神異常 같은 무서운 病이 發作되게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조헌영. 상계서:3.

38) <동아일보> 1935.1.12. 「겨울의 가정의학-여자의 냉증은 왜 생기나? 여학생도 숨바지를 입으라 (上)」

39) <동아일보> 1935.1.15. 「겨울의 가정의학-여자의 냉증은 왜 생기나? 여학생도 숨바지를 입으라 (下) -完-

40) <동아일보> 1939.11.16. 「환절기 위생 (3) 부인병에 제일 많은 화와 냉의 증세 (上)-환병이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성위장병도 환병이라고 합니다」

41) <동아일보> 1939.11.18. 「(3) 부인병에 제일 많은 화와 냉의 증세 (下) -完- 화와 열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요 화와 냉은 같은 병의 발 표입니다」

42) 칼럼에서는 陰虛熱의 치법과 처방을 직접 수록한 반면 『婦人病治療法』의 火條에서 虛弱에 의한 火의 치법과 처방은 虛弱條의 陰虛를 참조하고 하였다. 陰虛에 쓰이는 처방들은 칼럼에서 제시한 滋陰降火湯 등의 清熱藥들보다는 상대적으로 補陰에 치우치고 성질이 완만하다. 또한 칼럼에서는 補藥들은 많이 복용할수록 좋으며 攻瀉藥들은 변이 나오면 복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괄호 안에 추가하였는데, 『婦人病治療法』에서는 모두 삭제하였다. 칼럼은 한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婦人病治療法』의 독자는 한의사와 한의학자들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에 실패해 향진되면 ‘陰虛熱’, ‘陰虛火動’, ‘水虧火盛’이며 저하되면 ‘命門火衰’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熱感’으로, 배설기능이 불완전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火는 다시 熱과는 구분된다. 병리적 의미의 火는 자각적인 열감이며 熱은 타각적인 체온 상승이다. 따라서 서로 연관 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오히려 체온은 낮은데도 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대사활동이 침체되고 순환이 저하되어 체내에 대사산물과 유해물질이 정체되면서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冷은 몸이 차갑거나 시린 증상이나 帶下를 일컫는데, 주로 하체의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배설 및 생식 계통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 여성은 陰陽 중 陰에 해당하는 존재이므로 陰에 속하는 인체 하부에서 따뜻한 기운을 더 필요로 하며, 하체가 차면 더욱 병이 쉽게 온다고 하였다.

증상만 보면 火와 冷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나, 병리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대사가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배설이 불완전한 상태이다. 동일한 질병에도 인체 상하부에 따라 火와 冷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인병도 상체에서는 火, 하체에서는 冷으로 나타나며 둘이 동시에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도 무조건 淸熱藥이나 溫裏藥을 사용하기보다는 鬱滯를 풀고 舒導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1935년 냉증에 관한 칼럼<sup>43)</sup>에서는 여성의 하체 냉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영양섭취와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하체의 보온을 위해 방석과 솜바지를 활용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결국 火와 冷은 모두 대사와 순환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지만 나타나는 양상과 부위가 다른 것으로 보았으므로, 부족한 氣血을 보충하고 鬱滯를 해소하는 치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火와 冷을 강조하는 조현영의 관점은 일본의 古方派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현영은 일본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일본의 한의학계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1935년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일본한방의학회’와 그 기관지 『한방과 한약』을 언급한 적이 있다. 古方派의 傷寒治法에 대해 조현영은 극렬하게 비판<sup>44)</sup>하였으나, 『傷寒論』을 중시한 당시의 기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확실한

연관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4. 『婦人病治療法』의 처방 분석

##### 1) 『婦人病治療法』 처방의 연원

『婦人病治療法』의 말미에는 처방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처방 목록의 첫머리에 처방의 순서를 가나다순으로 기재되나, 다, 라, 타 행은 발음에 따라 배열하였다는 점, 처방들의 출전이 『景岳全書』, 『東醫寶鑑』, 『中醫學辭典』, 본인의 경험방 4가지라는 점을 밝혔다.

총 363종 처방 목록의 출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서는 171종의 처방을 인용한 『東醫寶鑑』이며 그 뒤로는 『景岳全書』에서 99종, 자신의 경험방(海山) 48종, 『中醫學辭典』 41종 순이다. 歸茸湯, 鹿茸四物湯, 四物湯은 출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조현영이 밝힌 처방의 출전에 포함되지 않은 『체중신편』에서 유일하게 單鹿茸湯 1종을 인용하였다. 앞서 「證治」에서 『東醫寶鑑』의 문장을 직접 발췌한 내용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처방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수를 인용하였다. 조현영이 『東醫寶鑑』의 이론뿐 아니라 실제 처방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2) 『婦人病治療法』의 다빈도 처방

『婦人病治療法』의 「證治」와 「洋診漢治」를 아울러 가장 등장 빈도가 높은 처방은 총 23회 언급된 四物湯이며, 총 22회 나온 加味逍遙散과 五福飲, 총 21회 수록된 補中益氣湯까지가 타 처방들보다 5회 이상 많이 언급된 최다빈도 처방이다. 총 16회 언급된 六味地黃湯, 총 15회 나온 大營煎, 총 14회 수록된 十全大補湯과 六君子湯, 총 13회 등장한 理陰煎과 八物湯까지는 타 처방들보다 최소 3회 이상 많이 언급된 다빈도 처방이다.

43) <동아일보> 1935.1.15. 「겨울의 가정의학-여자의 냉증은 왜 생기나? 여학생도 솜바지를 입으라 (下) -完-

44) “공사에만 전력하여...실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치료법”, ‘일종의 한의적 양의술’ 조현영. 「한방의학의 위기를 앞두고」: 조현영, 장기무, 정근양, 이을호, 신길구, 강필모.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1. 서울:소나무. 1997:196.

표 3. 다빈도 처방의 출전과 效能

처방명	인용횟수	출전	효능
四物湯	23	미기재	治血虛營弱, 一切血病當以此爲主
加味逍遙散	22	東醫寶鑑	治肝脾血虛及鬱怒傷肝, 少血目暗, 發熱脇痛, 小水不利等證
五福飲	22	景岳全書	五臟氣血虧損者此能兼治之
補中益氣湯	21	東醫寶鑑	治勞役太甚, 飲食失節, 身熱而煩, 自汗倦怠
六味地黃湯	16	東醫寶鑑	治腎水不足, 腎氣久虛盜汗發熱瘦弱無力, 婦人氣血虛無子閉經燥熱咳紅煩渴
大營煎	15	景岳全書	治眞陰精血虧損及婦人經遲血少, 腰膝筋骨疼痛, 或氣血虛寒心腹疼痛等證
十全大補湯	14	東醫寶鑑	治虛勞氣血兩虛, 能調陰陽, 又治虛勞自汗
六君子湯	14	東醫寶鑑	治氣血痰盛
理陰煎	13	景岳全書	溫潤之方治眞陰虛弱, 脹滿, 嘔逆, 痰飲, 惡心吐瀉, 婦人經遲血滯等證
八物湯	13	東醫寶鑑	治虛勞氣血兩虛能調和陰陽

다빈도 처방 중 출전이 기재되지 않은 四物湯을 제외하면 모두 『東醫寶鑑』과 『景岳全書』에서 인용된 처방들이며 대부분의 처방들이 補虛의 효능을 지녔다. 加味逍遙散은 淸肝, 瀉火, 利水하는 柴胡, 牡丹皮, 梔子와 같은 瀉하는 성질의 약재들을 포함하지만 출전인 『景岳全書』에서 補脾 처방 중 하나로 수록되어 있으며 조현영의 加減으로 補虛의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sup>45)</sup> 그러므로 『婦人病治療法』의 다빈도 처방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補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補의 대상은 氣血陰陽 및 肝, 腎과 같은 臟腑 등으로 다양하다.

### 3) 독자적 경험방 창안

「處方論解」 첫머리의 출전에는 각종 의서 외에 ‘海山46)’, 즉 조현영 자신의 경험방이 포함되어 있다. 「處方論解」의 전체 처방 중 출전이 ‘海山’에 해당하는 처방은 48종에 이른다. 이는 전체 363종 중 약 13.2%의 비중을 차지하는 적지 않은 수치이다. 경험방의 범주도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補血藥, 行血順氣藥, 潤便藥, 淸熱藥 등으로 다양하다.

처방의 개수가 상당히 많으며, 다양한 질병의 범주를 넘나들며 처방을 장안한 점에서 조현영의 임상 지식의 범위가 넓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證治」와 「洋診漢治」에서 경험방을 빈번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가장 많이 사용한 當歸橘皮湯, 海山和中湯도 「證治」와 「洋診漢治」 내용 중에서 5회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丹蔘四物湯 4회, 歸橘葛根湯 3회, 歸橘順氣湯, 當歸靑皮湯, 導精飲, 叙和湯(二), 地黃飲, 淸肝湯, 和中湯을 2회 사용하였다. 나머지 35종의 처방은 1회씩 사용하였다. 芎歸芪升湯, 和血化瘀湯은 언급된 적이 없다. 「證治」와 「洋診漢治」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처방인 當歸橘皮湯과 海山和中湯의 구성과 效能 및 評解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當歸橘皮湯과 海山和中湯

처방	當歸橘皮湯	海山和中湯
구성	當歸 三錢 陳皮 二錢 白朮 枳殼 厚朴 甘草 各一錢	陳皮 酸棗肉 各二錢 白茯苓 澤瀉 各一錢半 當歸 枳殼 厚朴 木香 各一錢 薑三片
효능	潤便和中	治氣不舒暢, 飲食不化, 腸胃氣滯, 或小便不利
평해	性이 溫하고 腸의 運動을 助長해서 排便을 利롭게 한다.	性은 微溫하고 舒氣導滯를 兼한 것인데 補性은 적다.

### 4) 기타 치료

『婦人病治療法』의 치료는 한약치료의 비중이 높으나 그 외에 섭생법도 다수 수록되어 있고 자극치료와 운동법도 나타난다. 먼저 섭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孕婦와 產婦의 섭생을 정신과 음식, 기거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했다. 이처럼 섭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부인에서 虛弱 및 精神狀態를 주요 병인으로 본 점과 연관된다. 또한 섭생은 고가의 약재나 의가의 도움 없이도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어 조현영이 지향한 대중의료에 적합하기 때문에 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시대까지의 한의학에서 부인과 질환 치료에 대부분 한약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그보다 적은 분량으로 침구를 활용하였으며 도인법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婦人病治療法』에서는 「證治」의 陰門諸疾條에서 2가지, 「洋診漢治」의 子宮後屈條에서 1가지의 자극치료를 제시했고 「洋診漢治」의 子宮後屈條에서는 운동법도 추가로 제시했다. 자

45) “治肝脾血虛, 發熱, 小水不利. 卽前逍遙散加丹皮·梔子各七分.” 張介賓. 傷寒集註:482.

46) 조현영의 호

극치료는 환부 주변 경락 또는 압통점에 자극을 가하는 방법이며 운동법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유사하여, 한의학의 도인안마와 유사한 개념이나 서양의학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했다.

### III. 결론

본 논문은 『婦人病治療法』의 내용과 처방을 분석하여 조현영의 의학 사상이 어떤 특징을 지녔으며, 실제 부인병 진단과 치료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婦人病治療法』은 「緒言」, 「證治」, 「洋診漢治」, 「處方論解」로 구성되며 「證治」의 내용과 處方論解의 출전을 통해 『東醫寶鑑』, 『景岳全書』, 『中醫學辭典』, 『濟衆新編』, 『醫學入門』, 『醫宗金鑑』 등의 다양한 의서를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緒言」은 부인병 진료의 기본 원칙과 주의사항, 의료윤리에 관한 내용이다. 「證治」는 본격적으로 부인병의 여러 증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전개한 부분이다. 전신적 증후부터 시작해 經帶胎産과 추가로 외과 및 특이한 증후들을 다루었다. 각 증후마다 증상과 특징을 설명한 후 辨證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맞는 처방을 수록하였다. 국한문혼용체 세로쓰기로 서술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원문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洋診漢治」에서는 서양의학의 부인과 질환들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과 치료를 논했다. 「處方論解」는 「證治」와 「洋診漢治」에서 사용된 처방들을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매겨 처방명, 출전, 약재 구성, 분량, 效能, 評解를 수록했다.

『婦人病治療法』에서 조현영의 의학사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조현영의 대표적인 의학사상인 동서의학결충론은 단순히 동서의학의 장점을 동등한 비중으로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證治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학 지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주장이었다. 다음으로 조현영은 책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補虛를 강조하였다. 「證治」와 「洋診漢治」에서 대부분의 병증에 虛弱이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妊産婦의 虛弱을 매우 경계했고 産後에 破血濟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여성의 특징으로 제시된 經帶胎産 외에 精神狀態를 중요한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사회적 환경 때문에 여성의 정신적 변화가 크고 빠르며, 이 변화가 육체적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八綱辨證이 아니라 火와 冷

을 하나의 축으로 한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火와 冷은 공통적으로 생리활동이 저해되어 발생하나, 나타나는 부위와 양상이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處方論解」에 수록된 처방은 총 363종으로 출전이 『景岳全書』, 『東醫寶鑑』, 『中醫學辭典』, 『濟衆新編』, 본인의 경험방이다. 특히 『東醫寶鑑』에서 가장 많은 171종의 처방을 인용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처방은 四物湯이며, 다빈도 처방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補虛藥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현영 본인이 창안한 경험방은 48종이며 「證治」와 「洋診漢治」에서의 등장 빈도는 낮으나 그 범주가 다양하다. 한약 외의 한방치료로 섭생을 강조하였으며, 자극치료와 운동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조현영은 임상보다는 기초이론에 치중한 한의학자이자 정치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婦人病治療法』에서는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기존 인식과 달리 조현영이 임상 의로서 동서를 넘나드는 폭넓은 의학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東洋醫學叢書』 및 다른 임상 저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현영의 의학사상 및 임상 지식과 그 형성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대 한의학과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서울:들녘. 2011.
2.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韓醫學通史』. 고양:대성의학사. 2006.
3.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關한 試論」. 韓國醫史學會誌. 2004;17(2):3-25.
4. 박운재.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 절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40:118-139.
5. 신창진.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42.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1.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5:117-154.
6. 김훈, 이해웅. 「通俗漢醫學原論 陰陽篇에 關한 考察」. 한국사학회지. 2011;24(2):17-24.
7. 전혜리. 「1934년 한의학 부흥 논쟁」. 한국과학사학회지. 2011; 33(1):41-89.
8. 백유상. 「조현영(趙憲泳)의 생애와 의학사상(醫學思想)」.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3):103-130.
9.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정책」: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1. 서울:아카넷. 2008:58-78.
  10. 조현영. 『通俗漢醫學原論』. 서울:醫林社. 1990.
  11. 조현영. 『東洋醫學叢書·婦人病治療法』. 서울:醫林社. 1971.
  12. 張介賓. 『景岳全書(下)』. 서울:大星文化社. 1992.
  13.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韓國醫史學會誌. 2000;13(1):111-127.
  14. 許浚. 동의보감국역위원회 역. 『原本 東醫寶鑑 <新增版>』. 서울:南山堂. 2009.
  15. 李梴. 『編註醫學入門(婦人·小兒·外科)』. 서울:大星文化社. 1990.
  16. <동아일보> 1935.1.12. 「겨울의 가정의학-여자의 냉증은 왜 생기나? 여학생도 숨바지를 입으라 (上)」.
  17. <동아일보> 1935.1.15. 「겨울의 가정의학-여자의 냉증은 왜 생기나? 여학생도 숨바지를 입으라 (下) -完-
  18. <동아일보> 1939.11.16. 「환절기 위생 (3) 부인병에 제일 많은 화와 냉의 증세 (上)-핫병이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성위장병도 핫병이라고 합니다」.
  19. <동아일보> 1939.11.18. 「(3) 부인병에 제일 많은 화와 냉의 증세 (下) -完- 화와 열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요 화와 냉은 같은 병의 발표입니다」.
  20. 조현영, 장기무, 정근양, 이을호, 신길구, 강필모.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서울:소나무. 1997.